

# 북한의 자생적 전자재시장 연구: 시멘트·모래 시장을 중심으로

최 설 | 굿퍼머스 연구원 연구위원 | shmfa99@gmail.com

## I. 머리말

지난 2월에 착공된 평양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 건설이 외부공사를 완공한 데 이어 내부공사에 들어갔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sup>1)</sup> 지난해 3월에 착공되었던 평양 송신·송화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보통강 강안 다락식 주택구(800세대) 건설도 1년 남짓한 기간에 완공되어 지난 4월 준공됐다.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기간(2021~25년) 동안 해마다 평양에 1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함으로써 평양시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sup>2)</sup> 이 밖에도 연포온실농장 건설, 검덕지구 살림집 건설 등이 진행 중이다.

2017년에 UN 대북제재의 강도가 높아진 데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북한경제가 현상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건설업이 진척되는 가시적 성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물론 2020년 3월에 착공되어 당 창건 기념 75돌(2020년 10월 10일)까지 완공하겠다는 평양종합병원은 아직 준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방대한 규모의 평양종합병원 외부공사가 이미 마무리되었다는 점이다.<sup>3)</sup> 이는 외부공사용 건축자재의 국내 생산과 조달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해 필수불가결한 부문과 단기적인 성과가 바로

1) 『노동신문』, 「웅장한 거리가 자태를 드러냈다: 위대한 당을 따라 격년을 부리며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는 영웅조선의 축도-화성지구」, 2022년 6월 3일.

2) 『노동신문』, 「우리식 사회주의문명부흥의 새 전기를 펼친 인민사랑의 기념비 송화거리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테이프를 끊으시었다」, 2022년 4월 12일; 『노동신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준공테이프를 끊으시었다」, 2022년 4월 14일.

3) 『노동신문』, 「평양종합병원건설장에서: 외벽타일붙이기 마감단계, 외부시설물건축공사 빠른 속도로 진척」, 2020년 9월 13일.

나올 수 있는 부문부터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의 대상을 본다면 농업, 건설 등이다(이종규, 2022, p.66). 국내자원으로 실행 가능한 경제적 프로젝트를 내세운 것이다. 여기서 건설 프로젝트는 고급 프로젝트일수록 최종 마감재 등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주택건설과 같은 프로젝트들은 대부분의 투입요소를 국내 자원만으로 충당한다(이석, 2022, p.8). 다시 말해 북한에서의 건자재 수급은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에 착안하여 1990년대 경제난 이후 계획경제가 와해된 시기부터 2010년대까지 북한에서의 건자재 수급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확대된 건자재시장의 메커니즘을 추적함으로써 향후 전망을 논의하도록 한다. 건자재시장은 강재와 철근, 목재와 유리, 시멘트와 모래, 외장재와 타일 등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시멘트와 모래는 건설공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필수자재이므로 본고의 내용은 시멘트·모래 시장으로 한정한다.

본고의 내용은 북한에서 시멘트공장에 근무하거나 국영공장 설비를 직접 임대해 시멘트를 생산했던 개인기업가, 국가건설장과 개인부동산건설장 등에 시멘트를 유통 판매한 상인, 모래의 생산과 유통 등에 참여했던 경험자를 심층 인터뷰한 자료에 기초해 서술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발행된 공식문헌과 국내 선행연구를 적극 활용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 II. 시멘트시장의 형성 배경과 확대 요인

### 1. 시멘트시장의 형성 배경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은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에 파급효과를 불러왔다. 특히 생산물시장은 자재공급의 미달과 배급제의 붕괴로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계획경제 시장화를 강력히 유인했다.

시멘트시장이 대표적이다. 먹고사는 문제가 급선무였던 고난의 행군 시기 주택건설자재인 시멘트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런데 식량난이 오히려 시멘트시장을 부각시킨 배경은 주목할 만하다. 알곡현물을 비축한 농장 측과 농장간부들의 건설자재 수요가 부각된 것이다. 당시 도시에서의 식량 수요가 폭발하고 식량가격마저 폭등하자 알곡현물을 보유한 사람이 '왕'이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 알곡현물은 곧 현금화폐였으므로 건설자재의 구입이 수월했는데, 식량은 비싸고 건설자재 가격은 싸기 때문이다. 이는 '농장

경영용' 알곡현물을 비축하고 있는 협동농장 측과 농장간부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여기서 '농장 경영용' 알곡현물은 농장 자체로 영농자재를 해결할 목적으로 비축하고 있는 벼와 옥수수 등을 말한다. 이는 합법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법도 아니라고 한다. 예를 들면 협동농장에서는 국가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비료, 농약, 종자 등이 미달되었으므로 '농장 경영용' 알곡현물을 비축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실태는 지역마다 달랐다. 그 원인은 1996년에 북한 당국이 새롭게 개선한 분조관리제로 설명할 수 있다. 북한의 분조관리제는 1965년 5월에 김일성 전 주석이 강원도 회양군 포천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제기한 것이다. 1990년대 들어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북한은 분조관리제를 전격 개선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 내용은 분조의 규모를 이전의 10~25명으로부터 7~8명으로 줄이고 '우대제'를 적용하며, 특히 분조단위에서 정보당 알곡생산계획의 한도를 낮게 설정한 것이었다. 계획을 초과한 현물알곡에 대해서는 분조성원들이 직접 나누어 가지거나 팔 수도 있게 하는 등 처분권을 주었다.<sup>4)</sup> 협동농장 입장에서는 알곡생산 계획 수행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되었으며, 협동농장간부의 능력에 따라 자체적으로 알곡 비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농장간부들이 편법을 적용해 얼마나 많은 비경지를 보유하고 있는냐에 따라 알곡 비축량에 영향을 주었다(김소영, 2017, p.117).

1996년 함경남도 정평군을 본다면 군에서는 리(里) 단위마다 5층, 7층짜리 현대적 살림집을 1,200여 세대 건설할 목표를 세웠는데, 기존에는 강을 건너기 위해 콘크리트 다리를 건설하고자 해도 자금과 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여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군 자체로 살림살이를 하게 될 여력이 생겼다<sup>5)</sup>는 것으로 보아 정평군 각 리마다 자리하고 있는 협동농장들의 비축 알곡량을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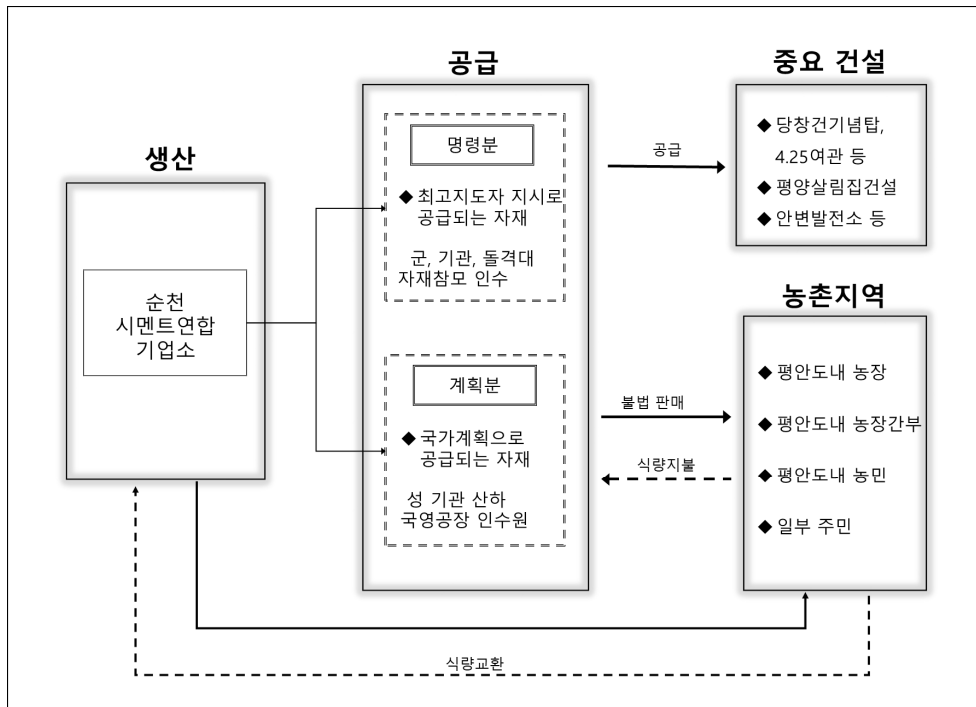
또 협동농장 간부들도 '농장 경영용' 명목을 내세워 개인사업용 알곡현물을 비축했다. 예를 들면 협동농장 리당비서의 경우 영생탑 건설과 연구실 증축 등 당의 지시나 정책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해결한다며 알곡현물을 비축하는 식이다. 관리위원장은 물론 기사장, 하급단위인 작업반장들도 개인 능력껏 농장알곡을 비축하였다. 농장간부들이 비축한 알곡은 영농자재 해결과 양수장, 탈곡장 등 농장시설을 보수한다는 명목이었으나 식량난을 계기로 쌀 가격이 폭등하자 비축한 알곡을 시장에 판매해 개인축재자금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건설자재와 알곡현물을 교환해 개인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였다.<sup>6)</sup>

한편, 도시 주민들과 국영기업 간부, 노동자들은 식량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4) 『조선신보』, 「분조관리제 도입 30돌」, 1996년 10월 24일.  
5) 『노동신문』, 「이들처럼 군 살림살이를 통이 크게 꾸려나가자」, 1996년 1월 10일.  
6) 1990년대 중순 이후 농장간부들은 대부분 개인주택을 신축하였다. 평안남도 문덕군 룡림리 협동농장 관리위원장과 리당비서는 호화스러운 주택을 건설하는 등 알곡현물로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죄로 2005년 평성경기장에서 공개 처형되었다.

가장 빠르게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시멘트를 싣고 농촌으로 이동해 식량과 교환하는 것이었다. 각자 재량껏 시멘트를 확보해 알곡현물을 비축하고 있는 농촌으로 갔다. 국영기업과 협동농장 간,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 간 시멘트를 사고파는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시멘트시장은 시멘트를 생산하는 공장 일대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순천시멘트공장과 상원시멘트공장 등이 대표적이다. 순천시멘트공장은 300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상원시멘트공장은 200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다. 북한 당국은 경제난이 심각했던 상황 속에서도 시멘트산업의 양대 기둥인 순천시멘트공장과 상원시멘트공장에는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비롯한 국가자재를 공급했다고 한다. 중요건설대상에 시멘트자재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산된 시멘트는 ‘계획분’과 ‘명령분’으로 공급된다. 계획분은 국가계획으로 국영기업소와 기관 등에 배분되는 것을 말한다. 명령분은 최고사령관(김정일 전 위원장)의 명령으로 군부대를 비롯한 중요기관에 배분되는 자재이다. 따라서 협동농장의 알곡현물과 교환되거나 시장에 판매되는 시멘트는 대부분 계획분 시멘트가 유출된 것이다. 계획분 시멘트가 불법 유출되어 농촌지역으로 유통되는 경로를 [그림 2-1]로 도식화하였다.

[그림 2-1] 1990년대 시멘트시장의 형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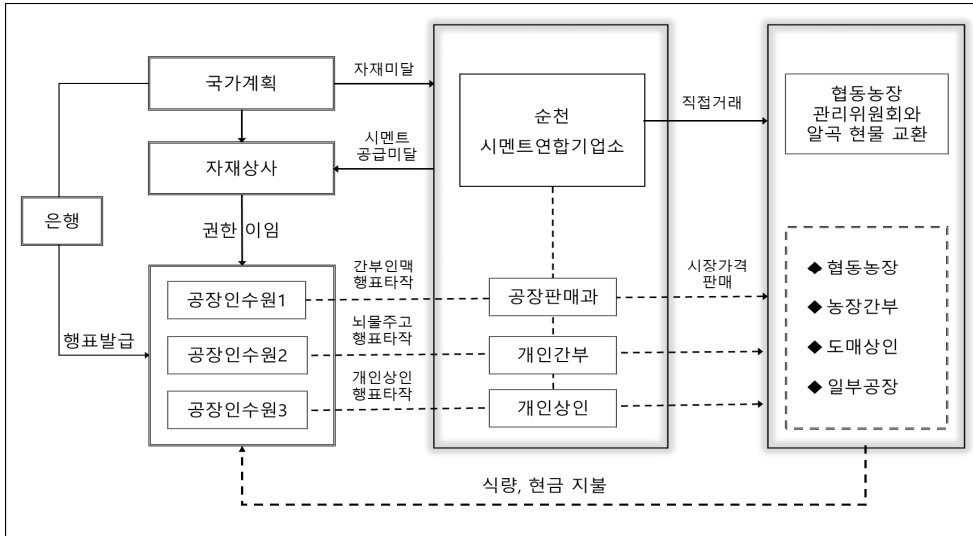
자료: 최철, 「경제난 이후 북한 순천 지역경제의 발전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p.45.

그런데 시멘트공장에서 명령분 시멘트를 우선 공급하고 나면 계획분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 당시 순천시멘트공장의 경우 연간 300만톤을 생산해야 했는데, 에너지 부족과 원자재 공급 미달 등으로 실제 생산량은 50만톤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국영기업과 기관 등에서 계획분 시멘트를 공급받는 것이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시멘트시장은 초기부터 계획 내 불법거래가 성행하였다.

그 방식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행표 타작’이 있다. 전국의 국영공장, 기관 등이 국가계획으로 배분된 시멘트를 공급 받으려면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무현금 행표를 시멘트공장에 결제해야 한다. 그런데 국정가격의 무현금 행표로 시멘트를 공급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무현금 행표는 휴지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무현금 행표로 시멘트를 공급받으려는 공장 인수원들 중에서 약삭빠른 인수원은 시멘트공장 간부, 혹은 시멘트공장 간부와 연결된 상인에게 뇌물을 주고 행표를 타작한다. 행표 타작의 분해 비율은 5:5도 있으나 대부분 3:7이며, 심지어는 10:1도 있다.

예를 들면 기계공장 인수원이 100만원짜리 무현금 행표의 일부분이라도 시멘트를 받으려면 시멘트공장 판매과 과장이나 창고장에게 뇌물을 준다. 그러면 시멘트공장 판매과 과장이나 창고장은 기계공장 인수원이 공급받아야 할 무현금 행표 100만원 분량의 시멘트 중에서 30만원 분량의 시멘트 현물을 공급한다. 공식서류에는 100만원 행표의 시멘트를 공급한 것으로 결제 처리된다. 이 경우 3:7제 타작이다. 그러면 시멘트공장 판매과 간부는 무현금 행표 70만원 분량의 시멘트 현물을 시장에 판매해도 뒤탈이 없다. 또 기계공장 인수원은 시멘트를 공급받는데 들어간 뇌물비용을 뽑아야 하므로 3:7제로 공급받은 시멘트의 일부를, 혹은 전부를 시장에 판매해도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유출된 시멘트 물량의 대부분은 협동농장 일대에서 알곡현물과 교환되었다. 이렇게 행표 타작으로 시멘트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을 [그림 2-2]로 도식화하였다.

[그림 2-2] '행표 타작'을 통해 불법 형성되는 시멘트시장: 순천의 사례



자료: 최설, 「경제난 이후 북한 순천 지역경제의 발전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p.49.

## 2. 시멘트시장의 확대 요인

2000년대에 들어서며 시멘트시장에 변화가 일어났다. 1990년대의 시멘트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자극하며<sup>7)</sup> 그 범위가 농촌지역으로 한정되었다면, 2000년대에는 수요가 공급을 자극하며 시장의 범위가 전국의 국가건설장과 개인부동산건설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 계획 내 불법적 거래로 형성되었던 시멘트시장이, 2000년대에는 계획과 시장이 합법적으로 공존하며 운영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는 주민소득의 상승과 7.1 조치, 종합시장 등 정책적 요인이 동인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우선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상승하였다. 초기에는 생계를 목적으로 장사하던 주민들이 현금을 저축하는 여유가 생겼다. 이는 살림집을 구입하려는 욕구로 표출되었다. 배급제 시대에는 부모님과 아들·며느리, 결혼을 하고 새살림을 차린 손주와 손주 며느리가 한집에서 사는 경우가 허다했다. 국가주택 공급난이 식량난보다 일찍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장사활동으로 현금을 저축하며 여성들이 가장 먼저 시집으로부터 분가를 선택했다. 주택 수요가 증가하기

7) 물론 1990년대에도 수요가 공급을 자극했다고 볼 수 있으나, 대부분 공장 기업소가 알곡현물을 비축하고 있는 농장으로 이통해 잠재적 수요를 자극한 측면이 많았다.

시작하자 주택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주택은 단순 주거지가 아니라 저축 수단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상승한 만큼 주택가격이 해마다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상인계층이 형성되었다. 개인 돈주가 등장한 것이다. 이들의 장사행태가 변화하였는데, 과거에는 본격적인 상행위 자체가 불법이었으나 이제는 종합시장이 공식적으로 등장하면서 자본을 투자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었다(양문수, 2005, p.34). 돈주들은 투자처를 물색했다. 수요가 폭발한 주택건설은 개인 돈주들을 유인하였다. 이는 북한의 주택배정정책과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북한 당국은 국가계획으로 살림집 공급을 할 수 없게 되자 지방정부 자체로 살림집을 건설해 제대군관 등에 배정하도록 하고, 지방정부는 다시 기관·기업소에 떠밀었다. 자금이 부족한 공장 기업소는 개인 돈주들에게 부지를 제공하고, 그 부지에 살림집 건설을 허용한 것이다. 또 2000년에 들어서며 과거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평양 살림집 건설이 시작되었다. 평양 3만세대 살림집 건설이 착공되었으며<sup>8)</sup> 용성구역, 서포구역, 역포구역 등 외곽지역까지 평양 살림집 건설이 확장되었다. 평양 살림집 건설은 정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건설을 담당할 기관·기업소는 반드시 제 기일 안에 끝내야 한다. 자금이 부족한 국가기관과 기업소는 개인 돈을 끌어들이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평양 살림집 건설은 물론 지방에서의 국가주택 건설은 자재 확보부터 시장 메커니즘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자재 수요가 폭발하였다. 전자재 중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시멘트 수요는 시멘트공장의 운영에도 변화를 촉진했다. 초과 수요에 대응하려면 더 많은 시멘트를 생산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시멘트 생산에 절실하게 필요한 원자재 공급은 여전히 부족했다. 하지만 2002년에 발표된 7.1 조치는 계획 내 시장공간에 개인 돈주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공간을 열어 주었다. 변화된 여건은 생산설비는 갖추고 있으나 자금 및 자재난으로 가동률이 저조한 시멘트공장들에 대한 개인 투자를 유인하였다. 개인 돈주들도 정책으로 공식화된 여건에 힘입어 시멘트공장에 적극 투자하며 생산물을 배분했다.

순천시멘트공장의 사례를 본다면 자본을 투자하고 시멘트 생산물을 국영공장과 배분한 경제주체는 석탄을 수출하는 무역회사, 석탄을 생산하는 개인 외화벌이탄광, 시장에서 현금을 저축한 개인 돈주 등이다. 무역회사는 설비를, 탄광 운영자는 석탄연료를, 개인 돈주는 자금을 투자하였다.

8) 『노동신문』, 「당의 위대한 수도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자.」, 2000년 4월 7일.

## 가. 설비 투자

시멘트 생산의 주원료는 석회석이다. 노천광산에서 생산되는 석회석은 발파에 필요한 폭약과 착암기만 있어도 채굴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영광산은 이마저도 부족해 석회석 생산에 애로가 많았다.

순천에서 석회석을 생산하는 국영광산은 성산광산과 5.4광산이 있다. 5.4광산은 내각 건재공업성 산하이며 석회석을 생산해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에 공급해야 한다. 성산광산은 내각 화학공업성 산하 순천비날론공장과 석회질소비료공장에 석회석을 공급해야 한다. 여기서 무역회사가 투자한 국영광산은 성산광산이다. 성산광산에서 석회석을 공급해야 할 순천비날론 공장은 산소열법에 의한 생산 공정이 실패하면서 국가적 조치로 공장 설비를 뜯어 함흥비날론 공장 등에 이관하는 등 공장 자체가 폐쇄되었다. 또 석회질소비료공장은 전력난으로 가동률이 저하되어 석회석을 생산하는 성산광산의 가동률도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 공간에 무역회사가 자본을 투자했다고 한다.

석회석 광산을 개발한 무역회사를 본다면, 군부 소속 승리무역회사와 총 정치국 산하 무역회사 등이 있다. 군부 소속 무역회사들은 성산광산 일대에 기지 형태의 건물을 건설하고 생산 장비와 인력 등을 투자했다. 인력으로는 군인들이 동원되었다. 생산된 석회석을 시멘트공장에 공급하는 대가로 무역회사는 시멘트를 받았다. 석회석을 시멘트공장에 공급하면, 시멘트 생산물을 받는다.<sup>9)</sup> 5.4광산에도 무역회사의 자본 투자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5.4광산은 1970년대 순천시멘트공장 건설과 동시에 개발된 광산이다. 5.4광산에는 현역 군인들이 집단 배치되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광부들이 일하고 있다.

석회석 생산보다 중요한 것은 운송 수단이다. 석회석 광산에서 시멘트공장까지 15km 전 구간 벨트컨베이어가 구축되어 있어 전력만 공급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시멘트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북창화력발전소, 평양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의 교차전력은 늘 불안정했다. 전력이 부족해지면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벨트컨베이어가 며칠간 중단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석회석 수송에 화물차량들이 동원되었는데, 수송수단은 전부 석탄을 수출하는 무역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25톤 트럭이었다.

개인 돈주들이 시멘트공장에 설비를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순천시멘트공장

9) 내각 산하 석회석 광산에 있어 군부 무역회사가 생산, 판매에 이르는 과정에 시장화를 진척한 배경에는 선군정치가 작용했다. 사실상 김정일 정부 집권 이후 북한의 선군정치는 계획경제체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1997년 말부터 2001년 또는 2002년까지 주요 경제 단위에 군 장령을 전권 대표로 파견하여 계획경제를 단지 정책 차원에서가 아니라 생산 이행 차원에서 관장했다. 당시 순천시멘트공장에도 군사대표부가 파견되었고, 시멘트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북창화력발전소에는 군 총 정치국장인 조명록 차수가 파견되었다. 북창단광에는 현역 군인들이 배치되어 조명록 차수의 지휘하에 석탄 생산을 했다는 것이다(경보사령부 편, 『북한조직편람』, 서울: 경보사령부, 2000, pp.242~243).

후문에는 항시적으로 시멘트 소성로 등 설비보수에 필요한 설비와 베어링 등을 언제까지 가져오면 시멘트를 얼마 제공한다는 ‘광고’ 형식의 전단지(전지)가 붙는다. 공장에서 직접 공장 후문에 ‘광고’를 붙이면 개인 돈주들은 신속하게 움직인다. 점점 이런 방법이 체계화되면서 공장은 ‘운영자금 확보’라는 명분으로 시멘트 생산물을 열차 화물로 뽑기도 했다. 공장시멘트가 열차 화물에 실려 나오면 ‘시멘트 빵통을 깬다’는 정보가 공장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시멘트 도매상인들에게 퍼진다. ‘시멘트 빵통을 깬다’는 말은 ‘공장에서 시멘트를 공식적으로 판다’는 은어였다. 이 말이 퍼지면 ‘시멘트공장 후문과 대건역전(전문 화물역) 주변에 있는 큰 손들이 60톤씩 적재된 화물 빵통을 현찰로 사버린다.’

외화벌이탄광 운영자나 개인 돈주들이 시멘트공장에 가장 많이 투자한 자재 중에는 강뿔도 있다. 강뿔은 공 모양의 쇳덩어리를 말한다. 시멘트 생산의 첫 공정에는 큰 덩어리 모양의 석회광석을 1차 분쇄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를 조쇄라고 한다. 조쇄 과정에 강뿔을 석회석과 함께 넣어 주면 조쇄 과정이 빠르고, 석회석 덩어리도 작게 부스러져 2차 분쇄가 빠르다. 강뿔은 크링카(클링커) 분쇄공정에도 사용된다. 강뿔을 많이 넣어야 석회석과 크링카(클링커) 분쇄공정의 속도와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시멘트공장에서 개인들에게 가장 많이 주문한 자재 중 하나가 강뿔이라고 한다. 강뿔은 중국에서 수입되거나 국내 강철공장, 기계공장 등에서 생산된다.

#### 나. 석탄연료 및 자금 투자

시멘트 생산에서 석회석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석탄연료이다. 시멘트 생산의 핵심인 소성로 가열에 석탄연료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석탄연료는 외화벌이탄광 운영자들이 투자한다. 시멘트공장이 먼저 투자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외화벌이탄광의 자발적 투자가 많다고 한다. 원래 시멘트공장에서는 국가계획으로 2.8직동청년탄광에서 석탄연료를 공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2.8직동청년탄광은 평양화력발전소에 공급해야 하는 석탄 생산만으로도 벅차다. 그러다 보니 시멘트공장에 필요한 석탄연료는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는 외화벌이탄광 등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외화벌이탄광 운영자의 입장에서도 생산된 석탄을 그대로 판매하는 수익보다 석탄연료를 시멘트공장에 투자하고 시멘트 생산물을 받아 시장에 판매하는 수익이 더 높다. 투자 형태는 선투자 후 생산물 배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시멘트공장이 시장경제 방식을 공장 운영에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7.1 조치로 강화된 기업의 자율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공장 지배인의 권한에 힘이 실린 것이다.

공장 지배인은 명령분 시멘트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시멘트를 계획분으로 공급하더라도 기존처럼 무현금 행표가 아니라 합의제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었다.

특히 공장이 별도로 ‘판매용 시멘트’를 비축하였다고 한다. 소성로 대보수 등 설비 마련과 자금이 필요하면 판매용 시멘트를 공식적으로 시장가격으로 판매한다. 순천시멘트공장 소성로는 1970년대 덴마크에서 중고 설비를 수입해 설치한 것으로 이미 수명이 지난 설비이다. 소성로를 돌리는 전동기 치차(톱니바퀴)들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소성로 전동기를 돌리는 소(小)치차가 마모되고, 그러면 대(大)치차도 금방 고장이 난다. 치차들의 맞물림 상태에서 변형이 오는 것이다. 국내산으로 대체하면 오래가지 못하고, 수입산으로 교체하고자 하면 외화가 필요하다. 공장에서 내각 건설건설공업부에 설비수입을 제기하면 위에서는 자체 해결하라고 하면 그만이다. 소성로를 멈추고 치차를 교체한 후 소성로를 정상 가동하려면 최소 한 달이 걸린다. 따라서 시멘트공장의 지배인은 사전에 판매용 시멘트를 시장에 판매해 소성로 대보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직접 자금을 투자하고 시멘트를 받는 방식도 있다. 여기에는 여러 방식이 존재하나 계절성 투자가 인기를 끈다. 예를 들면 개인 돈주가 시멘트공장에 자금을 후불제로 투자하는데, 시멘트 가격이 저렴한 장마철에 투자하였다가 시멘트 가격이 가장 비싼 봄철에 공장으로부터 장마철 가격으로 시멘트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흔하게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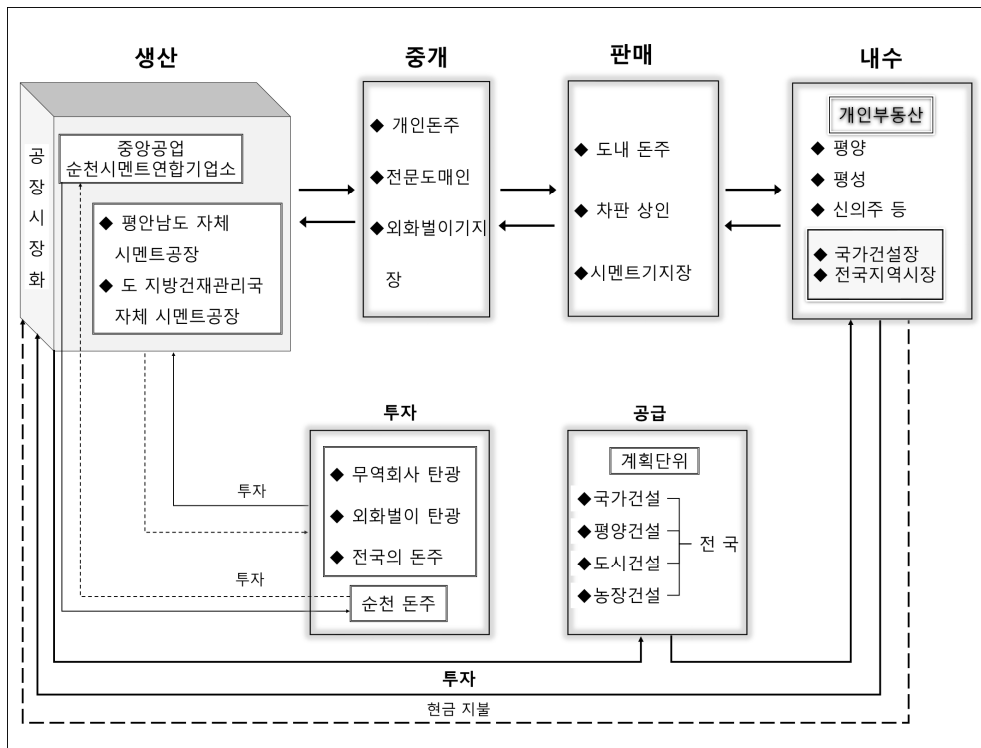
시멘트공장의 시장화는 2010년대에 김정은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관리제도가 시장 우호적으로 개편되고 관련 조항들이 법제화하면서 파급효과를 불러 왔다.<sup>10)</sup> 2012년 발표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는 기업이 직접 생산제품의 가격을 제정하고 판매처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운영자금 조달과 소득 배분 등에서 결정권을 높여 주었다. 특히 국가가 생산자재를 기업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격 제정과 공급처 결정에서 국가가 통제권을 행사하지만, 기업이 생산자재를 국가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직접 조달하여 생산한 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제정과 판매처 결정에 있어 기업이 결정권을 갖도록 하였다(이석기, 2019, p.31). 또 2014년에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발표되어 이미 계획과 시장 간 연계성이 확대되어 발전하고 있는 시멘트시장에 탄력을 주었다.

또한 평양 살림집 건설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건설사업이 확대되면서 시멘트 수요를 촉발시켰다. 사실 시멘트시장은 중요 대상 건설이 전개될수록 유리하다. 이는 2014년에 이어 2016년

10) 북한은 2010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94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이하 기업소법)을 채택하였다. 이후 2014년 11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8호로 수정 보충, 2015년 5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8호로 다시 수정 보충하였다. 기업소법은 제1장 ‘기업소법의 기본’, 제2장 ‘기업소의 관리기구’, 제3장 ‘기업소의 조직’, 제4장 ‘기업소의 경영’, 제5장 ‘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장 52조로 기업소 운영 및 관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으로 언급되어 있다(국가정보원 편, 『북한법령집 下』, 서울: 국가정보원, 2017).

평양 미래과학자거리와 여명거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의 추진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당시 평양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건설은 각 기관·기업소에 구역별로 할당하였다. 그러자 국영기관 기업소에서는 “누구든 돈 있는 사람은 국가에서 승인을 받고 집을 지어라”라는 공시를 장마당이나 역전 등 인파가 많은 곳에 붙였다고 한다(정은이, 2018, p.16). 실제로 기관·기업소는 개인 돈주와 손을 잡고 건설자금을 충당했으며, 그 대가로 개인 투자자에게 부지를 제공해 아파트 분양을 허용했다. 앞에서 언급했듯 부동산 건설의 핵심 자재는 시멘트, 강재, 목재인데 그중에서도 시멘트는 기초공사의 필수 자재다. 따라서 시멘트공장들은 개인 투자를 유치해 생산량을 늘려야 했다.

[그림 2-3] 계획과 시장이 연계되어 확대되는 시멘트시장: 순천의 사례



자료: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필자 작성.

북한의 주요 시멘트 산업으로는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승호리시멘트연합기업소 등이 꼽힌다. 가장 규모가 큰 공장은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이다. 생산규모가 클수록 시장과의 연계성은 넓어진다. 예를 들면 시멘트 생산의 주요 자재인 석탄, 석회석, 석고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각 요소마다 무역회사, 혹은 개인 돈주 투자가 유치되고 다시 공장과 개인 간 생산물 배분이 활성화된다. 이 과정에서 공식·비공식 경제주체들의 행위가 확장되어 새로운 시장을 파생시킨다. 시멘트공장 주변 일대에는 ‘공장시멘트를 전문 매입해 도매하는 물류업자’, ‘물류업자에게 부지와 창고를 임대해 주고 매달 수익을 챙기는 부동산임대업자’, ‘시멘트를 전문 수송해 주는 수송업자’, ‘여기에 봉사하는 각종 식당과 여관’ 등이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 III. 모래시장의 형성 배경과 확대 요인

#### 1. 모래시장의 형성 배경

모래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시멘트시장의 확대와 연동된다. 즉, 시멘트를 사용하려면 모래가 필수이므로 시멘트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모래수요도 증가하게 된다. 모래시장의 특징은 하천이 자리한 지역시장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안주는 청천강 하류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청천강 일대 중심으로, 신의주는 압록강 하류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압록강 일대에 모래시장의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순천지역은 시멘트가 생산되는 지역인데다 대동강 중류에 위치하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 모래시장의 규모가 빠르고 크게 형성되었다. 순천으로 흐르는 대동강은 수심이 깊고 강폭도 넓어 모래와 자갈의 원천이 풍부하다. 1990년대 경제난 이전에는 국영 골재사업소가 모래와 자갈을 채취해 국가건설장에 공급해 왔으나, 경제난 이후 자금난과 연료난 등으로 생산 가동이 거의 마비되었다. 2000년대 초반 해도 시장자원으로 관심 받지 못했던 대동강의 자원은 개인 부동산 건설의 증가로 시멘트시장이 확대되고 2010년대의 시장 우호적 정책으로 인해 지방정부와 기업의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황금알을 낳는 강’으로 변모하였다. 이에 따라 모래시장 내에서 채취, 유통, 판매 등을 담당하는 분업화가 촉진되었다(설송아, 2022, p.24).

## 2. 모래시장의 확대 요인

### 가. 지방정부의 인허가

2000년대 말~2010년대 들어서 모래시장이 급격히 확대된 요인은 지방예산제로 설명할 수 있다. 이전에는 지방수입에서 지방이 사용할 예산을 먼저 뺀 나머지를 중앙예산으로 납부했다면,<sup>11)</sup> 2010년대 들어서는 중앙예산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를 지방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sup>12)</sup> 지방정부가 중앙에 납부할 것으로 계획된 납부금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중앙에 대한 예산 납부와 자체의 지출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지방정부는 자기 지방의 원료 원천과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수입과 지출을 맞추도록 하였다. 지방정부가 중앙에 바쳐야 할 납부금 계획과 지방예산을 충당하려면 자기 지역에서 세금 징수 원천을 더욱 늘려야 했다. 그러려면 개인이 운영하는 기지와 식당, 세차장 등이 증가하도록 인허가를 완화해야 한다. 실제로 순천지역을 보더라도 지방정부는 대동강 모래를 채취하려는 개인 돈주들과 상인들에 대한 인허가뿐 아니라 모래시장이 확대되도록 모래를 적재하는 부지 임대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고 한다.

원래 순천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개인이 수공업적 방법으로 대동강 모래를 채취했다. 하루에 50~100킬로그램 정도의 모래를 채취해 손수레에 끌어 시장에 판매해 왔지만, 이러한 장사에는 지방정부가 관심을 두지 않았다. 2010년대에 시멘트시장이 확대되면서 모래시장이 주목을 받게 되자 지방정부는 비로소 모래 수요의 잠재력에 눈길을 돌렸다. 지방정부로부터 모래기지 운영 인허가를 받은 개인 돈주들은 월 수익금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납부하면서 선박과 채취설비를 구축하고 시장범위를 확대해 나갔다.

### 나. 국영기업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

지방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개인기업가는 가장 먼저 선박을 마련해야 한다. 대동강에서 모래를 채취하려면 배를 타고 대동강 수심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선박이 마련되면 채취 설비도 마련해야 한다. 모래선박과 채취 설비는 반드시 공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11) 오선희, 「지방예산편성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2002년 2호, pp.42~43.

12) 2012년에 북한은 「지방예산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예산의 운영 주체를 도, 시, 군 단위의 인민위원회로 명시하고 지방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도록 하였다. 「지방예산법」 제10조에는 “지방살림살이를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지방이 책임지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창발적으로 꾸려나가기 한다.”면서 “지방예산수입에서 웃기권에 바칠 납부금을 먼저 납부한 다음 필요한 재정지출을 보장하여야 한다”로 명시하였다(강명봉 편, 『2013년 최신 북한 법령집』, 서울: 북한법연구회, 2013).

기계공장 등에서 제조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7.1 조치에 이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시행이 법제도 차원에서 뒷받침되면서 기업의 자율성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특히 2014년 11월, 2015년 5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기업소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국영기업에 부여된 자율성이 ‘경영상의 상대적 독자성’이었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경영권’이 부여되었다(양문수, 2017, p.87). 즉, 계획권과 생산조직권, 노력조절권이 주어진 것이다. 계획권을 본다면 이제 기업은 자체의 실정에 맞게 현실적인 계획을 반영하여 기업소지표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기업소가 시장에서 수요하는 상품주문 계약을 자체로 계획화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국영공장과 기업소들은 시장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다시 말하면 모래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 돈주가 모래선박과 채취 설비를 기업에 주문하면 기업소는 그것을 기업 지표로 넣고 설비를 제조해 시장가격으로 판매하였다. 모래선박과 채취 설비는 주로 기계공장과 군수공장 등에서 제조했는데, 국영공장에서도 운영자금을 확보해야 하므로 개인의 설비 제작 주문을 환영한다.

모래선박과 채취 설비는 개인이 희망하는 선박 규모와 구조대로 제조하는데, 개인이 직접 도면으로 그려 기계공장에 주문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선박 제작에 필요한 철판과 목재 등은 주문자가 지불하는 선박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그 비용으로 국영공장에서 알아서 철판과 목재 등을 구입하는 것이다. 대체로 모래선박의 제조비용은 자재를 포함해 대략 1,500~2,000달러 사이이다. 선박의 크기는 대체로 길이 3.5미터, 너비 1.5미터, 높이 1.2미터 정도로서, 모래 2~3톤을 적재할 수 있다. 모래선박은 강에서 채취한 모래를 하루에도 여러 번 강기슭으로 운반해야 하므로 선박의 규모는 크지 않게 제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 돈주의 자금력에 따라 모래기지 운영자는 선박을 두세 척 운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업자는 선박 하나로 모래를 채취한다. 선박을 여러 척 소유한 업주는 대리경영인을 고용해 모래기지를 운영한다. 이런 업자를 선주(船主)라고 한다. 대리경영인은 선주의 친인척이 맡는 경우가 많다.

#### 다. 노동시장의 발달

선주는 대동강 모래를 채취하는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대리경영인 등 노동력을 고용한 업주를 지칭한다. 선주는 모래의 판로 등을 개척하기 위해 국가건설장과 개인부동산건설장과 같은 대상 물색에 바쁘다. 대리경영인은 선주가 위임한 모래 생산 및 판매, 인력관리, 회계 등을 총괄한다. 이때 대리경영인은 임의시각에 노동력을 고용해야 한다. 모래를 채취하고

유통하는 분업마다 고용해야 할 노동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이 발달하고 개인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에는 자연히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려는 다양한 인력이 모여든다. 즉, 노동시장도 필수적으로 발달된다는 말이다.

먼저 ‘모래공’을 보자. 날이 밝기 전부터 어두울 때까지 배를 타고 강 한가운데서 모래를 채취하는 인력을 모래공이라고 한다. 하루 종일 수심 속에서 도르래가 달린 바가지로 모래를 퍼 올리는 노동이기 때문에 신체가 좋고 젊은 남성들이 모래공으로 고용된다. 모래공 인력은 대리경영인이 선발하는데, 이때 대부분의 모래공은 타 지역 주민들이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 육체노동에 비해 임금이 적어 본토박이 주민들은 기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래공으로 채용되는 인력은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이 많다. 농민들은 협동농장에서 일을 하고 노력공수에 따라 연말에 분배를 받는데, 분배량은 알곡 수확고가 높을 때 옥수수와 벼를 합쳐 300킬로그램 정도이다. 그런데 모래공으로 고용되어 1~3개월만 일을 하면 농장에서 분배받는 식량의 몇 배를 구입하고도 현금을 저축한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도시로 이주해 개인기업에 고용되기를 원한다. 또 타 지역에서 온 국영공장 8.3노동자도 있다. 모래공의 하루 노임은 약 쌀 10킬로그램이다.

강 한가운데서 채취한 모래가 선박에 쌓이면 그 모래를 다른 선박에 이적하고, 모래가 적재된 선박을 물으로 끌고 나오기 위해 노를 젓는 ‘노공’도 있다. 2~3톤의 모래가 적재된 배의 노를 젓는 일공도 힘이 세고 젊은 남성들이 고용된다. 노공들의 하루 노임은 대략 쌀 2킬로그램이다. 보통 노공이 배를 젓는 횟수는 1일 2~3번 정도이다. 배의 노를 젓는 남성 일공은 30~40대 연령으로 선발되지만, 경험 있는 배공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고용되기도 한다.

강기슭에 도착한 배에서 하역된 모래는 강둑 모래 적재장까지 운반되어야 한다. 강둑이 높아 등짐으로 모래를 나르는 ‘마대공’이 또 고용된다. 모래시장에서 가장 많은 일공이 채용되는 업종이 마대공이다. 마대공 일을 하기 위해 새벽부터 대동강 주변에는 타 지역 주민들이 새까맣게 모여든다. 마대공은 모래를 나르는 양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체와 성별에 따라 일당에 차별을 둔다. 예를 들어 30대의 남성은 한 번에 최소 50킬로그램의 모래마대를 나를 수 있지만, 신체가 허약하거나 나이가 많을 경우 20킬로그램 정도의 모래마대를 지고 모래를 운반한다. 따라서 마대공의 일당 노임 계산은 시간제가 아니라 운반한 모래의 양에 따라 지불된다.

도로와 연결된 강둑에 적재된 모래는 모래를 사러 온 트럭 화물차에 상차된다. 이때 모래를 상차하는 인력을 ‘상차공’이라고 한다. 상차공 또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타 지역

인력이 주로 채용된다. 타 지역 노동력은 과잉이므로 개인기업가는 본토박이 주민을 고용하는 비용보다 보통 30% 정도 싼 임금을 제공한다. 하지만 타 지역 노동력이라도 기술과 전문성이 있을 경우 본토박이 일공과 동일한 노임이 적용되거나 더 높은 노임이 적용되기도 한다. 보통 모래 상차공의 하루 노임은 쌀 1킬로그램이다. 이 밖에 모래 경비원이 있다. 경비원은 쌀 10킬로그램을 월급으로 받는다.

모래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일공들이 늘어나면 음식점과 식당 등 골목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모래공, 마대공, 노공 등이 식사를 하거나 술과 담배 등을 구매할 편의점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순천지역을 살펴본다면 대동강 일대에 대규모 모래기지가 들어서면서 주변 일대에는 수많은 음식점과 개인 식당, 편의점 등이 등장하였다. 그러자 시 인민위원회가 이 일대를 세금 징수 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순천, 안주, 신의주 등지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모래기지에서 채취된 모래는 국가건설장과 개인부동산건설장 등으로 유통되어 시장가격으로 판매된다. 모래는 모래를 채취하는 하천의 특성에 따라 품질이 다르므로 판매가격도 상이하다. 또 선별공정을 거치면 생산원가가 적용되므로 모래 가격이 차별화된다. 예를 들면 건설부재와 블록 생산에 사용되는 자갈모래는 하천에서 채취한 그대로 판매되므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 그러나 선별공정을 거쳐 자갈과 모래를 분류할 경우, 생산원가에 에너지와 인건비 등이 추가되므로 모래와 자갈의 판매 가격이 올라간다.

특히 선별공정을 여러 번 거친 미장모래가 가장 비싼데, 이런 모래는 대부분 중국시장에 외화로 판매된다. 모래 수출에 직접 참여했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신의주 항구를 통해 압록강에서 채취된 모래와 자갈이 중국으로 수출되었다고 한다. 신의주 항구 한곳에서 매일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래와 자갈은 100톤 이상이다. 수출용 모래와 자갈은 하천을 끼고 있는 각 지역에서 국영명의 개인 모래기지에서 채취한 다음, 트럭 화물차로 운송해 신의주 항구에 넘기는 방식이다. 모래와 자갈이 외화벌이의 원천으로 부각되면서 골재사업소, 해운사업소 등 국영기업들도 개인 돈을 끌어들여 모래 수출시장에 뛰어들었다.

## 라.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

또한 국가 주도로 이동통신 서비스가 확대된 것도 모래시장이 활성화되고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 사실 북한시장의 질적 발달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손전화를

통해 가격 정보와 상품 주문 등이 실시간 교류되며 물류를 증대시키고 전국적으로 가격의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통신사용료만 지불할 수 있다면 모래시장에서 일하는 모래공 등 일공들도 손전화를 개통하고 손전화를 통해 인력 수집 정보를 입수하면서 시장활동에 참여했다. ‘집을 팔아서라도 손전화를 구매한다’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은 북한주민들의 시장활동에서 손전화가 필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모래시장 규모의 확대 발전은 북한 당국이 강구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기업의 자력갱생 방안에 부합하는 동시에 국가 세원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 긍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IV. 평가 및 전망

이제까지 본고에서는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경제적 혼란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에서 건설업 진척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건자재시장을 통해 탐색하였다. 범위는 시멘트·모래 시장으로 한정해 1990년대 경제난 이후부터 2000년대, 2010년대까지 시장의 형성 과정과 확대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시멘트시장은 계획경제가 와해되며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다. 계획 내 공급이 수요를 자극했으나 시장의 범위는 농촌으로 한정되었다. 그 이유는 심각한 식량난 때문이었다. 고난의 행군 시기 국영기업 간부들과 노동자들은 식량문제의 해결에 급급했는데, 계획으로 공급된 시멘트는 대부분 현물알곡을 보유하고 있는 농촌지역으로 유통되었다. 반면, 모래시장은 부각되지 않았다. 당시 주택 수요가 적었으므로 건설규모는 일부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의 개인주택 신축과 증축 등으로 한정되었다. 이로써 모래 수급은 각 지역 하천에서 자체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2000년대에 들어서며 시멘트시장은 주민소득의 상승과 7.1 조치, 종합시장정책 등 제도적 요인으로 확대되었다. 우선 현금을 저축한 주민들이 늘어나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 가격의 상승을 유인했다. 이는 개인에 의한 부동산 건설을 폭발시키며 시멘트 초과 수요로 이어졌으며, 나아가 시멘트공장의 시장화를 촉발했다. 국영공장이 개인 자본을 유치하고 생산물 배분을 활성화한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한 7.1 조치가 동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수직적이었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수평적이고 다층적인 시장경제 구조로 부분 이완되면서 시멘트시장은 확대되었다. 따라서 시멘트의 보완재인 모래 시장도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다.

셋째, 2010년대의 시장 개혁적 정책 변화는 지방정부와 기업의 자율성에 한층 더 탄력을 줌으로써 건자재시장의 양적·질적 발전을 뒷받침하였다. 시멘트시장이 국가건설 프로젝트와 맞물리는 과정에 시멘트물류업과 부동산임대업 등 새로운 시장을 파생시키며 일반 주민들에게 현금 축적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모래 시장 규모가 국내시장 범위를 벗어나 해외시장으로 확대된 것은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모래시장은 국가 세원 확충에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전망성이 있는 시장의 하나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국내 자원에 기인하고 있는 시멘트·모래 시장은 향후 대북 경제제재와 코로나 19로 국경봉쇄가 장기화될 경우에도 효과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시멘트 생산은 제조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북한 내에 매장량이 풍부한 석탄, 석회석이 주요 원료라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대북 경제제재와 코로나19로 국경봉쇄가 지속된다면, 북한 당국은 원자재 수입의 감소에 대처해 내부 자원 동원으로 경제 활성화를 선택할 것이며, 이를 위해 평양 1만세대 살림집 건설 등 국가건설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국가건설사업에는 시장자원 투입이 필수이므로 시멘트·모래시장 등 건자재시장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는 건설 수요가 무진장한 북한에서 건자재시장의 확대 요인이 앞으로 부동산시장을 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국가정보원 편, 『북한법령집 下』, 서울: 국가정보원, 2017.
- 김소영, 「경제위기 이후 북한 농업부분의 계획과 시장」,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노동신문』, 「웅장한 거리가 자태를 드러냈다: 위대한 당을 따라 격난을 부시며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는 영웅조선의 축도-화성지구」, 2022. 6. 3.
- \_\_\_\_\_, 「우리식 사회주의문명부흥의 새 전기를 펼친 인민사랑의 기념비 송화거리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테이프를 끊으시었다」, 2022. 4. 12.
- \_\_\_\_\_,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준공 테이프를 끊으시었다」, 2022. 4. 14.
- \_\_\_\_\_, 「평양종합병원건설장에서: 외벽타일붙이기 마감단계, 외부시설물건축공사 빠른 속도로 진척」, 2020. 9. 13.
- \_\_\_\_\_, 「이들처럼 군 살림살이를 통이 크게 꾸려나가자」, 1996. 1. 10.
- \_\_\_\_\_, 「당의 위대한 수도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자」, 2000. 4. 7.
- 『조선신보』, 「분조관리제 도입 30돐」, 1996. 10. 24.
- 설송아, 「北대동강, ‘황금알 낳는 강’…모래채취 사업 성업」, 『사회주의시장 풍경』, 서울: 시산맥사, 2022.
- 오선희, 「지방예산편성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2002년 2호.
-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생산물시장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2005.
- \_\_\_\_\_,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 이석, 「2021년 북한의 거시경제 분석과 2022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1월호.
- 이석기, 「김정은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3월호.
- 이종규, 「최근 북한의 정책대응 동향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1월호.
- 장명봉 편, 『2013 최신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2013.
- 정은이, 「북한 부동산 가치변화와 개발에 관한 연구: 평양을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30권 4호, 2018.

정보사령부 편, 『북한조직편람』, 서울: 정보사령부, 2000.

최설, 「경제난 이후 북한 순천 지역경제의 발전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2.